http://dx.doi.org/10.14400/JDC.2016.14.2.315

주관적인 치아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와 자아존중감과의 관련성

정은서, 이경희
신한대학교 치위생학과

Relationships between subjective teeth awareness and satisfaction on self-esteem

Eun-Seo Jung, Kyeong-Hee Lee
Dept. of Dental Hygiene, Shin ha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치아가 외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및 자신의 치아 만족도, 주관적인 치아에 대한 인식과 자아존중감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의 관련성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향후 치아 미용 관련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015년 5월부터 8월까지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일반인 320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이 중 응답이 미흡한 18부를 제외한 302(94.38%)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적합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001), 모형 설명력은 23.4%로 나타났으며, 선정된 독립변수 중 학력(대졸 이상)과 치아가 외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주관적인 치아에 대한 인식은 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 주관적인 치아에 대한 인식이 증가할수록 자아존중감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 치과를 내원하는 환자들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구강보건교육을 시행하고, 치아의 색이나 배열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신감과 만족감을 더 고취시킬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외모만족도, 자아존중감. 치아만족도, 치아 미용, 치아 인식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some basic information on counseling, diagnosis and treatment planning for patients related to teeth care.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filled out by 320 subjects in Seoul and Gyeonggi from May to August, 2015 after permission from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Except 18 copies, 302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WIN 19.0 program.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four questions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ten questions of the awareness toward of subjective teeth, five questions of the influence of teeth on appearance, and ten questions of self-esteem. The dependent variables made a 23.4% prediction of self-esteem. If they have higher education(p<0.001), influence of teeth on appearance(p<0.001) and the awareness toward of subjective teeth(p<0.001)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self-esteem. The findings suggest that heightened subjective awareness toward teeth seems to be of use for the improvement of self-esteem. Therefore it's required to make an effort to take good care of teeth in terms of color or arrangement as well as oral health.

Key Words : Self-esteem, Teeth awareness, Teeth satisfaction

Received 28 December 2015, Revised 29 January 2016
Accepted 20 February 2016, Published 28 February 2016
Corresponding Author: Kyeong-Hee Lee(Shin han university)
Email: noh3898@hanmail.net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최근 경제 성장과 함께 인간의 미에 대한 욕구와 관심 또한 커지고 있다. 오늘날 외모가 일상생활에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증가하여 외모에 대한 현대인들의 집착은 단순히 자기만족의 단계를 넘어서 자아정체감의 형성이나 심지어는 사회생활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있어서도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1].

또한 외모가 사회적 성공을 위해 매우 유리한 조건이라는 통념이 광범위하게 자리 잡게 되면서 많은 이들이 의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러한 성공의 조건을 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2]. 이에 따라 외모에 대한 관심은 단순한 개인적 취향의 문제에서 사회적인 경쟁력의 요소로까지 적극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3]. 외모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위는 얼굴이며, 이는 개인의 초점이 되고, 다른 사람과의 음성적, 감정적 교환의 근원이 된다[4]. 특히 치아는 말을 하거나 미소를 지을 때 가장 많이 눈에 띄게 되어 외모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사람의 인상을 좌우하기도 한다[5].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단순히 심미적인 치아 상태의 개선만을 목적으로 치과에 내원하는 환자도 증가하는 추세이다[6]. 따라서 외모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치아 상태 역시 대인관계 및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Self-Esteem)이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즉 평소에 개인이 스스로에 대해 내리는 평가라고 할 수 있다[7]. 또한 자신에 대한 관념적인 평가로서 스스로를 수용하고 신뢰하는 태도이며, 개인의 능력, 성공, 중요성, 가치 등을 믿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8]. 따라서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대하는 태도, 대인관계, 문제해결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인간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9].

이와 관련하여 외모에 대한 만족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서[10]는 외모의 만족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보고하였고, Pelham 등[11]은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자신의 신체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 지에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김[3]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은 자기존중감과 사회생활의 자신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취업 등 사회활동에 관심이 많은 여성층에서는 미용성형수술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외모를 개선시키려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서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도 높아지고, 내, 외적인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고 변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2].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외모에 있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치아에 대한 인식이나 만족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치아가 외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및 자신의 치아 만족도, 주관적인 치아에 대한 인식과 자아존중감에 대해 살펴보고, 이 들의 관련성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향후 치아 미용 관련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5년 5월부터 8월까지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편의추출법에 따라 연구자가 임의로 추출하고, 연구자가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해 설명한 후 조사에 참여의사를 보인 대상자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직접 나누어준 다음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게 하였다. 자료수집에 총 320부의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이는 서울, 경기지역 20세 이상 성인 약 2,254만명에 대해 오차범위를 10%, 신뢰구간을 90%로 하였을 때 환산된 표본크기 271에 결측치를 예상하여 반영한 표본크기이다. 회수된 설문지 중 자료처리에 부적합한 18부를 제외한 302(94.38%)부를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2.2 연구도구 및 신뢰도

치아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와 자아존중감과의 관련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사용된 도구는 박[2]이 사용한 도구, 주관적인 치아에 대한 인식은 이와 김[12]의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측정항목은 일반적 특성 5문항, 치아가 외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

식 5문항, 치아 만족도 5문항, 주관적인 치아에 대한 인식 10문항, 자아존중감 10문항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 때 치아가 외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은 일반적인 견해와 자신의 치아에 대한 인식(만족도)을 구별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각각 5문항씩으로 조사하였다. 일반적 특성을 제외한 모든 변수는 Likert 방식에 의한 5점 척도를 이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도구는 모든 문항의 요인적재량이 0.5이상으로 타당성이 입증되었고, 신뢰도는 주관적인 치아에 대한 인식 및 자아존중감 문항에서 부정적인 문항은 역코딩하여 구하였으며, <Table 1>과 같다.

〈Table 1〉 Reliability of research tools

Variables	Number of questions	Cronbach's α
Influence of teeth on appearance	5	0.876
Teeth satisfaction	5	0.860
Awareness toward of subjective teeth	10	0.866
Self-esteem	10	0.702

2.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WIN 19.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고, 치아가 외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치아 만족도는 문항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치아가 외모에 미치는 영향 및 치아만족도, 주관적인 치아에 대한 인식 및 자아존중감을 파악하기 위해 모수 검정의 T-test와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one-way ANOVA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에 대해서는 Scheffe를 사용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이용하였고,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성적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2>.

성별은 여성이 58.6%, 남성이 41.4%이었으며, 연령은 20대 이하가 29.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 24.2%, 30대 18.5%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이 53.0%로 가장 많았고, 스케일링 경험은 있는 경우가 62.6%로 가장 많았으며, 미백경험은 없는 경우가 89.1%로 가장 많았다.

〈Table 2〉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Division		N	%
Gender	Male	125	41.4
	Female	177	58.6
Age	20-29 years	88	29.1
	30-39 years	56	18.5
	40-49 years	73	24.2
	50-59 years	44	14.6
	≥ 60 years	41	13.6
Education level	Under middle school graduation	41	13.6
	High-school graduation	160	53.0
	Above university graduation	101	33.4
Experience of scaling	Yes	189	62.6
	No	113	37.4
Experience of tooth whitening	Yes	33	10.9
	No	269	89.1
Total		302	100.0

3.2 치아가 외모에 미치는 영향

치아가 외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다<Table 3>.

요인별로는 치아의 기능이 평균 4.08±0.79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치아의 건강 4.04±0.84점, 치아의 배열 3.99±0.78점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3〉 Awareness of the influence of teeth on appearance (N: 302)

Division	Mean±SD
Array of teeth	3.99±0.78
Color of teeth	3.88±0.77
Size of teeth	3.51±0.85
Health of teeth	4.04±0.84
Function of teeth	4.08±0.79

3.3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치아가 외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치아가 외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Table 4〉 Influence of teeth on appeara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Division		N	Mean±SD	t(F)	p
Gender	Male	125	3.77±0.68	-2.797	0.005**
	Female	177	3.99±0.63		
Age	20-29 years	88	3.96±0.60	0.859	0.489
	30-39 years	56	3.98±0.58		
	40-49 years	73	3.87±0.76		
	50-59 years	44	3.86±0.53		
	≥ 60 years	41	3.90±0.79		
Education level	Under middle school graduation	41	3.95±0.61	0.673	0.511
	High-school graduation	160	3.93±0.73		
	Above university graduation	101	3.84±0.54		
Experience of scaling	Yes	189	3.92±0.69	0.715	0.475
	No	113	3.86±0.60		
Experience of tooth whitening	Yes	33	4.07±0.69	1.562	0.119
	No	269	3.88±0.65		

**:p<0.01: t-test for two groups and One-way ANOVA(post-test Scheff) for three or more groups.

성별에서는 남성 3.77±0.68점, 여자 3.99±0.63점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797, p<0.01). 그러나 연령, 학력, 스케일링 경험, 미백 경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4 치아만족도

치아 만족도는 다음과 같다<Table 5>.

요인별로는 치아의 크기가 평균 3.31±072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치아의 기능 3.19±0.79점, 치아의 배열 3.18±0.91점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5〉 Teeth satisfaction (N: 302)

Division	Mean±SD
Array of teeth	3.18±0.91
Color of teeth	3.06±0.81
Size of teeth	3.31±0.72
Health of teeth	3.11±0.88
Function of teeth	3.19±0.79

3.5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치아만족도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치아 만족도에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6>.

〈Table 6〉 Teeth satisfac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Division		N	Mn±SD	t(F)	p
Gender	Male	125	3.26±0.78	1.335	0.183
	Female	177	3.14±0.79		
Age	20-29 years[a]	88	3.31±0.73	3.157	0.015*
	30-39 years[a]	56	3.30±0.71		
	40-49 years[ab]	73	3.14±0.73		
	50-59 years[ab]	44	3.25±0.92		
	≥ 60 years[b]	41	2.83±0.86		
Education level	Under middle school graduation[a]	41	2.76±0.86	9.552	0.000***
	High-school graduation[b]	160	3.19±0.74		
	Above university graduation[b]	101	3.38±0.77		
Experience of scaling	Yes	189	3.17±0.83	-.0.648	0.517
	No	113	3.23±0.72		
Experience of tooth whitening	Yes	33	3.33±0.85	1.092	0.276
	No	269	3.17±078		

*:p<0.05, ***:p<0.001: t-test for two groups and One-way ANOVA(post-test Scheff) for three or more groups.
a, b: The same character indication shows that there i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Table 7〉 Awareness toward of subjective teeth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Division		N	Mean±SD	t(F)	p
Gender	Male	125	3.17±0.61	1.528	0.128
	Female	177	3.07±0.57		
Age	20-29 years	88	3.15±0.65	1.638	0.165
	30-39 years	56	3.18±0.57		
	40-49 years	73	3.10±0.51		
	50-59 years	44	3.16±0.62		
	≥ 60 years[ab]	41	2.91±0.53		
Education level	Under middle school graduation[a]	41	2.80±0.58	12.108	0.000***
	High-school graduation[b]	160	3.07±0.56		
	Above university graduation[b]	101	3.30±0.57		
Experience of scaling	Yes	189	3.10±0.61	-0.569	0.570
	No	113	3.14±0.55		
Experience of tooth whitening	Yes	33	3.11±0.56	-0.001	0.999
	No	269	3.11±0.59		

***:p<0.001: t-test for two groups and One-way ANOVA(post-test Scheff) for three or more groups.
[a,b]: The same character indication shows that there i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연령별로는 20대가 3.31±0.73점으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이 2.83±0.86점으로 가장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3.157, p<0.05). 또한 사후분석 결과, 20대와 30대는 60대 이상과 차이를 보였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이 3.38±0.77점으로 가장 높았고, 중졸 이하가 2.76±0.86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9.552, p<0.001). 또한 사후분석결과, 중졸 이하는 고졸과 대졸 이상과 차이를 보였다.

또한 성별, 스케일링 경험, 미백 경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6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주관적인 치아에 대한 인식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주관적인 치아에 대한 인식에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7>.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이 3.30±0.57점으로 가장 높았고, 중졸 이하가 2.80±0.58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12.108, p<0.001). 또한 사후분석결과, 중졸 이하는 고졸과 대졸 이상과 차이를 보였다.

또한 성별, 연령, 스케일링 경험, 미백 경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8〉 Self-esteem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Division		N	Mean±SD	t(F)	p
Gender	Male	125	3.46±0.44	1.720	0.086
	Female	177	3.38±0.41		
Age	20-29 years	88	3.46±0.40	0.929	0.447
	30-39 years	56	3.43±0.43		
	40-49 years	73	3.40±0.45		
	50-59 years	44	3.43±0.44		
	≥ 60 years	41	3.30±0.41		
Education level	Under middle school graduation[a]	41	3.21±0.32	16.325	0.000***
	High-school graduation[a]	160	3.36±0.40		
	Above university graduation[b]	101	3.59±0.44		
Experience of scaling	Yes	189	3.41±0.43	0.230	0.818
	No	113	3.41±0.42		
Experience of tooth whitening	Yes	33	3.51±0.39	1.343	0.180
	No	269	3.40±0.43		

***:p<0.001: t-test for two groups and One-way ANOVA(post-test Scheff) for three or more groups.
[a,b]: The same character indication shows that there i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Table 9〉 Correlation of the self-esteem

Division	v1	v2	v3	v4
Influence of teeth on appearance(v1)	1			
Teeth satisfaction(v2)	0.027	1		
Awareness toward of subjective teeth(v3)	0.042	0.679***	1	
Self-esteem(v4)	0.190**	0.267***	0.400***	1

**:p<0.01, ***:p<0.001

3.7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8>.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이 3.59±0.44점으로 가장 높았고, 중졸 이하가 3.21±0.32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16.325, p<0.001). 또한 사후분석결과, 중졸 이하와 고졸은 대졸 이상과 차이를 보였다.

또한 성별, 연령, 스케일링 경험, 미백 경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8 자아존중감과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각 변수들과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9>과 같다.

치아가 외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은 자아존중감(r=0.190, p<0.01), 치아 만족도는 주관적인 치아에 대한 인식(r=0.679, p<0.01)과 자아존중감(r=0.267, p<0.001), 주관적인 치아에 대한 인식은 자아존중감(r=0.400, p<0.0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치아가 외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과 치아 만족도, 주관적인 치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9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인 성별, 연령, 학력, 스케일링 경험, 미백경험 등을 가변수 처리한 후, 치아가 외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과 치아 만족도, 주관적인 치아에 대한 인식 등의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자아존중감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10>.

적합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8.645, p<0.001), 모형 설명력은 23.4%로 나타났으며, 선정된 독립변수 중 학력(대졸 이상)과 치아가 외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주관적인 치아에 대한 인식은 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력 및 치아가 외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과 주관적인 치아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0〉 The affecting factors on self-esteem

Division	B	SE	β	t	p
Constant	2.052	0.177		11.619	0.000***
Gender(Female vs Male)	-0.038	0.046	-0.044	-0.814	0.417
Age(20-29 vs ≥ 60 years)	0.044	0.078	0.048	0.566	0.572
Age(30-39 vs ≥ 60 years)	-0.122	0.087	-0.112	-1.401	0.162
Age(40-49 vs ≥ 60 years)	-0.006	0.082	-0.006	-0.072	0.943
Age(50-59 vs ≥ 60 years)	-0.015	0.086	-0.013	-0.178	0.859
Education level(High-school vs Under middle school)	0.118	0.075	0.139	1.579	0.115
Education level(Above university vs Under middle school)	0.329	0.082	0.367	3.993	0.000***
Scaling(Yes vs No)	0.006	0.047	0.007	0.125	0.901
Tooth whitening(Yes vs No)	0.107	0.073	0.079	1.457	0.146
Influence of teeth on appearance	0.128	0.034	0.198	3.811	0.000***
Teeth satisfaction	-0.020	0.038	-0.037	-0.521	0.603
Awareness toward of subjective teeth	0.248	0.051	0.343	4.900	0.000***
R^2=0.264, adj. R^2=0.234, F=8.645, p=0.000***, DW = 2.034					

***:p<0.001

4. 고찰 및 제언

얼굴은 개인의 초점이 되고 다른 사람과의 음성적, 감정적 교환의 근원적 역할을 하며, 신체적 매력으로 볼 때에도 매우 중요한 신체영역이다[13]. 그리고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행복과 효율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이고,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의 감정상태를 조절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방어를 어렵게 한다[14]. 또한 최근의 학문 융복합에 대한 움직임에 발맞추어 의료서비스 역시 심리적인 부분을 반영하여 보다 진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람의 외모에 대한 평가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5]으로 알려진 치아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살펴보고,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치아가 외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치아의 기능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치아의 건강, 치아의 배열 순으로 나타나 치아의 기능과 건강을 치아의 외적인 부분 못지않게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교정치료의 동기로 외모의 개선이 가장 많다고 보고되었던 김 등[15]의 연구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치아가 외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성별에서는 남성 보다 여성의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p<0.01$), 이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미적 욕구가 높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여성이 하얀 치아를 희망하고, 미백시술을 더 많이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던 이 등[16]의 연구와도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었다.

자신의 치아에 대한 만족도는 치아의 크기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치아의 기능, 치아의 배열 순으로 나타나, 치아가 외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치아 만족도에 살펴본 결과, 연령에서는 20대가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이 가장 낮았으며($p<0.05$), 학력에서는 대졸 이상이 가장 높았고, 중졸 이하가 가장 낮았다($p<0.001$). 이는 젊은 연령층이 노년층에 비해 비교적 치아 건강상태가 우수하고,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치아 관리수준이 높은 것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었으며, 김 등[1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주관적인 치아에 대한 인식에 살펴본 결과, 학력에서는 대졸 이상이 가장 높았고, 중졸 이하가 가장 낮았으며($p<0.001$), 이는 자신의 치아에 대한 만족도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구강건강 상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신[18]의 연구와 유사하였다.

자아존중감은 평균 3.41점으로 나타나 이와 김[12]의 3.63점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을 살펴본 결과, 학력에서 대졸 이상이 가장 높았고, 중졸 이하가 가장 낮았으며($p<0.001$), 이는 전문직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던 민과 도[19]의 연구와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었다.

외모에 관한 인식에 관한 한 조사[13]에 의하면 조사대상의 11.3%가 외모로 인한 스트레스 또는 차별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며, 성형을 하려는 이유로 29.0%가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여 외모는 자신감 및 자기만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또한 외모관심은 자아존중감과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반면, 외모 만족도는 자아존중감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였다[20]. 이와 관련하여 치아가 외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과 치아 만족도, 주관적인 치아에 대한 인식과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치아가 외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p<0.01$), 치아 만족도($p<0.001$), 주관적인 치아에 대한 인식($p<0.001$)은 자아존중감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치아가 외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과 치아 만족도, 주관적인 치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결과는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던 구[21]의 연구결과와 신체 이미지에 대한 호감도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자아 인식을 보였던 양과 최[22]와 이[2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고, 이와 반면에 신체만족도에 따라 각 집단의 사회적 자아존중감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박과 황[24]의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다.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본 결과, 학력 및 치아가 외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과 주관적인 치아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보고한 이와 김[12]의 결과와도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었다. 또한 이는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는 사람은 타인의 긍정적인 반응을 통

해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며, 높아진 자아존중감은 대인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양과 최[2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치아는 제 2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외모와 관련이 깊으며, 주관적인 치아 상태가 좋아지면 자아존중감 역시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향후 치아 미용 관련 환자 관리 시에 이와 같은 결과를 고려한 진료가 수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일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이므로 본 연구를 일반화하는 데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지만, 다양한 연령층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한 연령층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을 했다는 점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다각적으로 연구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보다 대상을 확대하여 연구를 실시하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조사대상의 구강검사를 통해 구강건강상태도 함께 분석에 추가한다면 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5. 결론

향후 치아 미용 관련 환자의 상담, 진단, 치료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활용하고자 2015년 5월부터 8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치아가 외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및 자신의 치아 만족도, 주관적인 치아에 대한 인식과 자아존중감에 대해 살펴보고, 이 들의 관련성에 대해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치아가 외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은 치아의 기능이 평균 4.08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치아의 건강 4.04점, 치아의 배열 3.99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치아가 외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여성이 남성 보다 높은 인식을 보였다($p<0.01$).

2. 자신의 치아에 대한 만족도는 치아의 크기가 평균 3.31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치아의 기능 3.19점, 치아의 배열 3.18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치아 만족도에 살펴본 결과, 연령에서는 20대가 3.31점으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이 2.83점으로 가장 낮았으며($p<0.05$), 학력에서는 대졸 이상이 3.38점으로 가장 높았고, 중졸 이하가 2.76점으로 가장 낮았다($p<0.001$).

3.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주관적인 치아에 대한 인식에 살펴본 결과,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인식 수준을 보였으며($p<0.001$),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역시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인식 수준을 보였다($p<0.001$).

4. 치아에 대한 인식과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치아가 외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r=0.190$, $p<0.01$), 치아 만족도($r=0.267$, $p<0.001$), 주관적인 치아에 대한 인식($r=0.400$, $p<0.001$)은 자아존중감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5.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본 결과, 학력이 높을수록, 치아가 외모에 미치는 영향과 주관적인 치아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이상의 연구결과 주관적인 치아에 대한 인식이 증가할수록 자아존중감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 치과를 내원하는 환자들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구강보건교육을 시행하고, 치아의 색이나 배열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신감과 만족감을 더 고취시킬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1] Lee GY, A study on the effects of physical attractiveness on sociality - focus on middle and high school. Research of student life, Vol. 11, pp. 1-18, 1998.

[2] Park KA, A comparative study on the self-esteem between orthodontic patients and general dental patient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07.

[3] Kim YJ, Effects of aesthetic surgery on body image, self-esteem and satisfaction with outcomes. J Korean Soc cosmetol, Vol. 13, No. 3, pp. 1236-1246, 2007.

[4] Proffit WR, White RP Jr, Who needs surgical-orthodontic treatment. Int J Adult Orthodon Orthognath Surg, Vol. 5, No. 2, pp. 81-89, 1990.

[5] Hong JH, Good teeth care is sufficient enough to change one's impression. Seoul Pampas, pp. 210-11, 2007.

[6] Lee HJ, Jeon ES, A research on the questionnaires about Busan citizens understanding of the tooth whitening. Korean Soc Dent Hyg, Vol. 6, No. 1, pp. 79-91, 2006.

[7] Jung SY. The influence of orthognathic surgery for facial improvement on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body cathexis. Master's thesis, Gachon University. 2010.

[8] Hong ES, The effect of the self-esteem enhancement program on elementary school children's self-esteem and adaptation of school life. Res counsel psychol, Vol. 3, No. 1, pp. 76-100, 2001.

[9] Jang SY, Effects of self esteem, family support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on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J Korean Health Edu & Promotion, Vol. 30, No. 2, pp. 11-22, 2013.

[10] Seo YK, Relationships between adolescents' appearanc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and academic achievement. Master's thesis, Sook-myung University. 2003.

[11] Pelham BW, Mirenberg MC, Jones JT, Why Susie sells seashells by the seashore: implicit egotism and major life decisions. J Pers Soc Psychol, Vol. 82, No. 4, pp. 469-487, 2002.

[12] Lee HK, Kim NS, Dental fear and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by mediating variable model(self-esteem & self-regulation). J Korean Soc Dent Hyg, Vol. 14, No. 4, pp. 577-584, 2014.

[13] Lee K, Lim HS, Jang KS, Status of perceptions for appearance and cosmetic surgery among university freshmen. J DongGuk Med, Vol. 13, No. 1, pp. 27-36, 2006.

[14] Chae SJ, The difference in adolescents' self-respect and self efficiency made by their satisfaction with their physical appearances. Master's thesis, Kyungpook University. 2008.

[15] Kim SS, Kim DK, Whang CJ, Park JY, The effects of related factors and perception of malocclusion on orthodontic treatment timing. J Korean Dent Assoc, Vol. 38, No. 5, pp. 452-465, 2000.

[16] Lee KH, Park CH, Kim SK, Awareness and satisfaction on tooth whitening. J Korean Soc Dent Hyg, Vol. 13, No. 4, pp. 605-613, 2013.

[17] Kim YN, Kwon HK, Chung WG, Cho YS, Choi YH, The association of perceived oral health with oral epidemiological indicators in Korean adults. J Korean Acad Dent Health, Vol. 29, No. 3, pp. 250-260, 2005.

[18] Shin JH, Factors associated with self-percep-tion on oral health in patient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ental hospital dental care center. Master's thesis, Chonnam University. 2012.

[19] Min KJ, Do JA, The influence of oral health impact profile (OHIP) on self-esteem of patients during orthodontic treatment. J Korean Acad Indus Co Soc, Vol. 10, No. 7, pp. 1773-1778, 2009.

[20] Lee KH, Ahn GYR, The Effect of the Interest and Satisfaction in Appearance on Interpersonal Relations and Self-Esteem. J Korean Assoc Psychotherapy, Vol. 5, No. 1, pp. 73-83, 2013.

[21] Koo MH, Relation between the degree of contentment in outward appearance and self-respect in the youth. Master's thesis, Kyunggi University. 1999.

[22] Yang S, Choi YS, Effects of Training Grooming Skills to Chronic Schizophrenic Inpatients on Improving Satisfaction on Self-appearance,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J Korean Acad Psychiatric & Ment Health Nurs, Vol. 9, No. 3, pp. 358-370, 2000.

[23] Lee SS, A Study on Self-Esteem and Physical Satisfaction of The Elderly Women. J Korean Gerontol Soc, Vol. 29, No. 2, pp. 547-562, 2009.

[24] Park EH, Whang CS, Social Self-Esteem According to Clothing Satisfaction and Body Satisfaction of Female College Student. J Korean Soc Cloth & Text, Vol. 2007, No. 1, pp. 186, 2007.

정 은 서(Jung, Eun Seo)

- 2006년 8월 : 고려대학교 보건정책 및 병원관리학과 (보건학 석사)
- 20011년 2월 : 원광대학교 보건학과 (보건학 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신한대학교 치위생학과 겸임교수
- 관심분야 : 임상치위생학, 치과의료보험
- E-Mail : dentalmien@hanmail.net

이 경 희(Lee, Kyeong Hee)

- 2004년 8월 : 단국대학교 구강보건학과(보건학 석사)
- 2009년 2월 : 전남대학교 치의학과 (치의학 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신한대학교 치위생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구강보건, 예방치과학
- E-Mail : khlee@shinhan.ac.kr